

한국영화 크리스마스 악몽...외화에 완패



한국영화가 크리스마스 악몽에 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성탄절인 전날 한국영화 관람객은 50만4920명이다. 외화 관람객

2010년대 들어 가장 저조한 성탄절 성적표

137만588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0년대 들어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미이웨이', '퍼펙트게임' 등을 앞세운 2011년 성탄절의 54만 1441명보다 3만6521명이 적다. 성탄절 경쟁에서 외화에 밀린 건 2012년 뒤 6년만이다. 2013년 성탄절부터 이어오던 100만 관객 이상 동원의 흐름마저 깨져버렸다. 기대를 모은 '마약왕'과 '스윙키즈'의 동반 부진 탓이 크다. 마약왕은 이날 스크린 834개(2819회 상영)에서 20만18956명을 모았다. 전날보다 9.3%(1만7812명)을 더 모으는데 그치며 박스오피스 3위로 떨어졌다. 좌석판매율은 48.8%로 1만석 이상을 확보한 영화 가운데 11위다. 상영 횟수가 이를 전보다 1808회나 줄여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PMC: 더 벵커, '말모이', '내일의 그놈' 등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어 이어져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

다. '스윙키즈'의 흥행도 여의치 않다. 이날 스크린 657개(1857회 상영)에서 14만4584명을 동원했다. 전날보다 26.5%(3만307명)를 더 모으는데 머물러 박스오피스 4위에서 제자리걸음했다. 좌석판매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서 반등할 여지는 있다. 20일에 14.4%, 21일에 17.7%, 22일에 29.0%, 23일에 30.4%, 24일에 31.2%, 25일에 59.7%를 각각 기록했다. 예매율(2시 34분 기준)에서도 PMC: 더 벵커(7만9621명), '하쿠아벤(6만2888명)', '밤탈비(4만2448명)'에 이어 4위(3만9161명)를 달린다. '마약왕'은 6위(1만8117명)다. '하쿠아벤'은 나흘 연속 박스오피스 선두를 달렸다. 이날 스크린 1174개(4282회 상영)에서 50만7421명을 모았다. 2009년 '하비타(60만 2123명)'와 함께 성탄절에 5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외화로 기록됐다. 누적관객은 210만275명이다. '밤탈비'는 스크린 1016개(4646회 상영)에서 44만6222명을 모았다. 높은 좌석판매율(52.2%)로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누적관객은 53만597명이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스크린 687개(1545회 상영)에서 14만3529명을 동원했다. 전날보다 19.7%(2만 3606명) 늘었으나 박스오피스 5위로 떨어졌다. 누적관객은 876만1529명이다. 여전히 높은 좌석판매율

'나쁜형사' 시청률 9.4%, 엔딩 장면은 최고 11.1% 돌파



진범이 장형민(김건우)이라는 것을 밝혔고, 회대의 연쇄살인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에 우태석뿐만 아니라 경찰 내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이후 우태석은 은선제의 무죄를 입증

'나쁜형사'가 13년 전 메밀밭 살인사건에 얽힌 진짜 진실을 드러내며 예측 불가능한 반전을 선사, 안방극장을 또 한 번 압도했다. MBC 월화드라마 '나쁜형사'는 연쇄살인미보다 더 독특한 형사와 연쇄살인미보다 더 위험한 천재 사이 코페스의 이슬아슬한 공조수사를 그린 범죄 드라마로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변화없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의 자리를 이어가며 안방극장에 '나쁜형사' 열풍을 이끌어내고 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 60분 내내 휘몰아치는 전개,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과 짜임새 있는 연출까지 더해져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스타일리시 감성 액션 범죄수사 드라마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나쁜형사' 지난 15-16회 방송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과격 전개와 더불어 13년 전 메밀밭 살인사건에 관한 또 다른 파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우태석(신하균)과 은선제(이설)의 관계 변화였다. 뼈에 조커 연쇄살인미를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가 된 은선제를 우태석은 한치의 의심 없이 굳게 믿어왔다. 은선제는

이처럼 우태석과 은선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변화를 보여준 동시에 이들의 공조 수사 시 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까지 선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반전은 극 말미에 그려져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은선제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우태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주인공은 다른 아닌 장형민이었다. 얼갈 한 쪽에 화상을 입은 채 다시 등장한 장형민은 이설과 함께 있는 우태석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한 것 자각했고, 이어 우태석은 그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채고 그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끝내 장형민은 우태석에게 '너, 배여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라고 물은 것 이어 '배여울이란 나랑 공범이야 배여울한테 물어봐'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를 들은 우태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은선제 역시 외국인에게 지면서 외국인 붉게 변지는 모습을 보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보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증폭시켰다. 과거 메밀밭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르는 모습을 기억해 내 과연 이 장면이 13년 전의 진실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상에서 불과한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나쁜형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엔딩 장면으로 안방극장을 또 한 번 충격 속에 빠뜨렸다. 이에 시청률 역시 15회는 7.5%, 16회는 9.4%(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 부동의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 왕좌의 자리를 지켜내며 최고의 인기와 화제성을 겸비한 드라마임을 재입증했다. MBC 월화드라마 '나쁜형사'는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골목식당' 6주연속 비드라마 화제성 1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화제성을 입증했다. 최근 굿데이포커레이션 TV화제성 연구팀에 따르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6주 연속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유지했다. 황교익의 연이은 공개 저격과 청파동 분노 유













발자의 등장에 네티즌의 비난이 다수 나타났다. 2위는 EXO 완전자 출격인 JTBC '이혼'이 차지했다. EXO 출연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3위는 전현무의 '프레디 무 큐리' 변신이 큰 화제를 모은 MBC '나 혼자 산다'였다. 전현무의 역대급 축하 공연에 네티즌의 호응이 폭발했다. 4위는 흥진영 어머니가 새 멤버로 합류한 SBS 비운 우리 세끼'가 차지했고, 5위는 나은X견후 남매와 엑소 찬열X카이가 봉진 KBS

'원손잡이 아내' 이승연부터 선우용여까지, 명품배우 다 모였다

원손잡이 아내' 믿고 보는 배우진들이 출격한다. 2019년 1월 2일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원손잡이 아내' (극본 문은아/연출 김명욱/제작 판 엔터테인먼트)가 첫 방송된다. 2019년 KBS를 장식할 첫 드라마 '원손잡이 아내'는 너는 내 운명', '웃어라 동해야' 등을 연이은 여주' 등을 쓴 문은아 작가의 이름을 연출한 김명욱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손잡이 아내'는 초반부터 남편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전개를 예고한 만큼 예비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명품배우진들이 모였다. 이들은 폭풍전제 속에서 캐릭터를 맛깔스럽게 표현하며 몰입도를 높여줄

것이다. 먼저 짧은 예고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배우 이승연 (조애라 역)이 있다. 극중 이승연이 맡은 역할은 대기업 오라그룹 회장의 며느리. 앞서 공개된 1차 티저 속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로 막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이승연이 예비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배우의 작품에서 활약한 내공 있는 배우 정찬도 빼놓을 수 없다. 정찬이 맡은 박강철은 박순태 회장의 아들로, 단 한 번도 오라그룹의 실권을 잡지 못한 적 없는 막내 후계자다. 정찬이 박강철을 어떻게 그려낼지 궁금하다.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한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원손잡이 아내'는 2019년 1월 2일 첫 방송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음력 11월 20일)

 <p>▶경자 띤, 축, 표 성씨는 지식 된 도리를 다하라. 1, 2, 3월생은 검은색이 화를 부르니 가급적 피하라. 데이터하려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닭, 돼지, 범띠 탓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겠다.</p>	 <p>▶을묘 기, 사, 오, 목 성씨는 말은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실수를 막는 길. 1, 2, 8, 10월생은 부모 복도 형제 복도 없으니 자립함이 좋겠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법. 되는대로 사는 것은 금물이다.</p>	 <p>▶정사 기, 띤, 트 성씨는 사업의 목망을 지금쯤 펼쳐도 좋다. 의료, 금융업 종사자는 봉사를 많이 하면 하는 일도 번창하고 인격적으로도 인정받는다. 3, 10, 12월생은 노란색 옷을 입고 애인을 만나라. 내일을 다지자.</p>
 <p>▶사미 기, 자, 승 성씨는 늦게 시작한 사람이 오래갈 수. 결혼하면 자녀 재물관 봐도 스트레스가 풀릴 듯. 3, 5, 7월생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집도, 행복도 한꺼번에 날리게.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하다. 북, 서쪽 사람을 기다리라. 되돌아온다.</p>	 <p>▶무진 5, 6, 9월생은 미꾸라지처럼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라. 영웅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깨달라. 기, 목, 트 성씨는 사업하려면 포부가 있어야 한다.</p>	 <p>▶정미 2, 3, 5월생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익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을 찾으라. 띤, 축, 승 성씨는 불의를 지나치지 않는 단신이다. 하지만 악몽하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잔피를 부리는 건 성공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p>
 <p>▶무술 미 4, 9, 11월생은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 행할수록 사업은 번창한다. 띤, 오, 트 성씨는 신경 쓰이는 날이 되겠으니 일찍 귀가해 휴식하는 것이 상책이다. 근심 걱정은 마음에서 오는 법. 애정에 지나친 집착을 삼가라.</p>	 <p>▶기유 1, 7, 8월생 기적, 자동차 운송업 종사자는 자동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 기, 띤, 오, 승 성씨는 연하, 연상 따지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라. 좋은 인연이 될 수. 미혼자가 짝을 얻는 방향은 북, 동쪽.</p>	 <p>▶정축 띤, 자, 목 성씨는 인연은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갈 뿐이니 실속을 챙기라. 1, 5, 7월생은 대성할 운이다. 신용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늦바람은 중심 잡기 힘든 법이다.</p>
 <p>▶정묘 기, 10, 12월생 기시덤불을 헤쳐 온 당신이니 사업상 위기도 의지로서 이겨낸다. 띤, 표, 축 성씨는 떠난가 님이 등지 찾아 돌아오겠다. 깨끗한 마음으로 노란색 옷을 입고 맞이하라. 아 내 잔소리는 사랑의 멜로디로 생각하라. 보약이 될 것이다.</p>	 <p>▶을진 4, 6, 9월생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을 읽을 줄 알아야 웃음꽃 피운다.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업보다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 띤, 띤, 자, 축 성씨는 자녀도 이제 성인이니 풀어줘도 괜찮다. 숫자, 3, 6, 9가 행운의 수.</p>	 <p>▶정축 욕심은 불타오르지만 할 뿐 그칠 줄을 모른다. 바람처럼 넓은 마음을 갖자. 8, 9, 11월생은 자연의 희생과 담담함을 배우라.</p>